

## ■ 꿀찌 KIA 극약처방

## 1·2군 코치진 전원 맞바꿔

조범현 KBO기술위원, 배터리 코치로 영입



다.

이번 코칭스태프의 보직 개편은 위기 탈출을 위한 신진급 선수의 대거 기용에 이은 두 번째 극약처방으로 분석된다. 코치진의 자리바꿈은 가라앉은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충격요법으로 지난 해에도 LG, SK가 시즌 중에 꺼내들었던 카드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끌없이 추락중인 호랑이 군단이 1,2군 코치를 전원 맞교체하는 초강수를 뒀다.

KIA는 18일 “박승호 1군 수석코치와 이건열 타격, 백인호 수비, 김종윤 주루, 이광우 투수코치를 2군으로 내리고, 김지훈 배터리코치를 전력분석팀 코치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대신 차영화 2군 감독을 1군 주루 및 작전 코치로 임명하고, 구천서 코치를 1군 수비, 김종모 코치를 1군 타격, 이강철 코치를 1군

투수 코치로 각각 배치했다.

또 지난 해까지 SK 와이번스 감독을 지낸 조범현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을 배터리 코치로 영입했다. 조 코치는 19일 선수단 상관례를 갖고 20일부터 1군에 합류할 예정이다.

KIA가 스타 선수들에 의존하면서 치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일부의 평가를 고려하면 LG, SK가 시즌 중에 꺼내들었던 카드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 KIA, 이번주 ‘운세’

## 독수리·곰 상대…가시밭길 예상

KIA 타이거즈의 올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최근 SK와 삼성을 상대로 4승 2패를 거두며 상승세로 돌아섰던 KIA는 지난 주말 잠실 LG와의 3연전에서 내리 3연패를 당했다.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18일 현재 8개팀 가운데 가장 많은 61경기를 소화한 KIA는 24승36패 1위로 선두 두산과 10개임차, 7위 롯데와 4.5개임차로 처져있다.

승률도 딱 4할에 불과하다. 4위 진입의 자대가 되는 5할 승률에 들어가기 위해선 남은 65경기에서 최소 39승 26패를 해야하는 데 가능성이 희박하다.

서점한 감독은 6월 내에 승패 폭을 최소 5개임까지 줄일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12’ 게임으로 늘어났다. 7~8월에 대 반격을 한

◇프로야구 중간순위 (18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개인차	연속
1	두산	33	25	1	0.569	-	2승
2	SK	30	25	5	0.545	1.5	2패
3	한화	29	27	2	0.518	3.0	2패
4	L G	28	27	2	0.509	3.5	4승
5	현대	29	29	0	0.500	4.0	1패
6	삼성	27	28	3	0.491	4.5	1승
7	롯데	27	30	2	0.474	5.5	2승
8	KIA	24	36	1	0.400	10.0	3패

다해도 극복하기 힘든 수치다. 앞으로 11경기에서 최소 9승 2패를 해야하는 데 현 전력으로 ‘남의 나라 애기’처럼 들린다.

얼친데 높진격으로 당장 이번 주 맞붙어 애할 상대팀들마저 만만치 않다.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광주 3연전엔

다이너마트 타선을 보유한 한화가 기다리고 있다.

KIA는 올 시즌 8개 구단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한화에 가장 악한 면을 보이고 있다. 모두 6게임을 맞붙여 2승 4패. 방어율도 7.06으로 최악이다.

한화를 넘나다면 ‘똑심야구’를 선보이며 선두를 질주중인 두산과의 주말 잡살 3연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 시즌 두산전에서 4승 5패(방어율 3.18)로 다소 강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즌 초 두산의 침체기 때 올린 성적인 탓에 효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전 선수들의 출발상으로 시름 중인 KIA호가 이번 주 결연이 쌓인 가시밭길 일정을 어떻게 소화해 낼지 지켜보는 팬들의 마음도 답답할 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 KIA 최희섭 몸상태는

## 러닝도 힘들어…전반기 보기 어려울듯

“1군 진입이요?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제 14회 무등기 대회를 관전하러 온 장체근 KIA 코치는 최희섭의 몸 상태를 묻는 질문에 “티 배팅은 커녕 러닝 훈련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장 코치는 “늑골 부상은 그냥 편히 쉬는 게 최고인데 팀 사정상 그럴 수도 없는 입장에 어렵다. 뛸 때마다 통증이 있는 모양”이라면서 “현 상태로는 전반기 내(7월)에 시합에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코치는 “늑골 부상은 그냥 편히 쉬는 게 최고인데 팀 사정상 그럴 수도 없는 입장에 어렵다. 뛸 때마다 통증이 있는 모양”이라면서 “현 상태로는 전반기 내(7월)에 시합에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코치는 “늑골 부상은 그냥 편히 쉬는 게 최고인데 팀 사정상 그럴 수도 없는 입장에 어렵다. 뛸 때마다 통증이 있는 모양”이라면서 “현 상태로는 전반기 내(7월)에 시합에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코치는 “늑골 부상은 그냥 편히 쉬는 게 최고인데 팀 사정상 그럴 수도 없는 입장에 어렵다. 뛸 때마다 통증이 있는 모양”이라면서 “현 상태로는 전반기 내(7월)에 시합에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이라면서 “컨디션을 좀 더 지켜본 뒤 훈련 계획을 새로 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코치의 말대로라면 현재 광주에서 KIA 재활군과 함께 치료와 가벼운 스트레이칭을 병행중인 최희섭의 전반기 출전은 사실상 물건�간 것으로 보인다.

최희섭의 영입으로 외국인 타자 래리 서튼을 방출 시킨 KIA로선 최희섭의 갑작스런 부상에 당혹스런 표정이다. 그나마 부진하던 이주가 최근 1군에 복귀했지만, 아직도 헤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본즈 “8개 남았다”

## 개인통산 748호 홈런 쏴

## 최다홈런 신기록 초읽기

미국프로야구 홈런왕 배리 본즈(4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6일 만에 대포를 재가동하며 개인통산 홈런 신기록 수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본즈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인터리그 경기에서 3-8로 뒤진 6회초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1

21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전 이후 6일

만에 홈런을 추가한 본즈는 통산 748호를 기록, 이 부문 신기록 보유자인 행크 아론(755개)에 7개 차로 다가섰다. 시즌 14호로 앞으로 8개만 더 펜스 밖으로 넘기면 메이저리그 홈런 역사를 새롭게 쓴다.

2회 우전 안타를 친데 이어 3회 중견수 플라이로 물려난 본즈는 6회 선두타자로 나와 보스턴 선발로 나선 팀 웨이크 필드를 상대로 볼 카운트 0-1에서 2구째를 끌어당겨 솔로 아치를 그렸다.

본즈는 이날 7회 볼넷을 골라 3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으나 샌프란시스코는 장단 11안타를 효과적으로 집중시킨 보스턴에 5-9로 졌다.



레알 마드리드 4년만에

스페인 프로축구 우승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초호화 군단 레알 마드리드가 4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레알 마드리드는 18일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보 경기장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메라리가 38라운드 최종전에서 호세 안토니오 레예스가 두 골을 뽑아내는 활약을 펼친 데 힘입어 레알 마요르카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같은 시간 2위 FC 바르셀로나도 힘나스티크 타라고나를 5-1로 대파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승점 76으로 동률이 됐지만 시즌 상대 전적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1승1무로 앞서 통산 30번째 프리메라리가를 제패했다.



우승까지 넘봤던 타이거 우즈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카브레라 생애 첫 PGA 우승

## 우즈·짐 퓨릭 1타차 공동 2위

## US오픈골프 최종

‘엘 파소(오리)’ 앙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가 제107회 US오픈골프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 기쁨을 누렸다.

카브레라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근교 오크몬트골프장(파70·7천23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63명의 선수 중 유일한 언더파 스코어

메이저대회에서 6차례 ‘톱10’에 올랐던 카브레라는 PGA 투어 대회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이끌어냈다.

이날 카브레라는 버디 5개에 보기 4개를

결과이며 대역전국을 이끌어 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9일(화)

▲ 메이저리그〈플로리다-시카고W〉(09:00-Xports)

▲ 전국대학배구 하계대회〈경기대-성균관대〉(13:50-SBS스포츠)

▲ MBC ESPN 단0 대축제 올드스타 씨름대회(14:00-MBC ESPN)

▲ 제2회 WTF 세계풀사 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선발대회(14:00-KBSN Sports)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롯데〉(17:50-SBS스포츠)

▲ 프로야구〈삼성-LG〉(18:00-KBSN Sports), 〈KIA-한화〉(18:30-MBC ESPN)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본사 시판부(062)222-8111

갓 바위낚시	토이 애견	이조가구수리전문	리바트가구호남전시장	샘 터 곱 창	주홍학사역술원	아미지테라피	해 남 땅がらみ
목포 신동평장 우미피크밸5층 길치낚시 출조문점 대표 임 항 종 (019)604-0472	삼각동 31시단정문앞 애견미용 강이지분양·고양이·호텔운영 각종 애견용품 공인기금미용사 (062)573-5211	오지동 자연과학고등학교앞 부동산모든 것 상담환경 대표 전 수 열 (062)572-8500	신창동 산동교와 보건천문대사이 1번국도로변 수인언티, 정식소품, 촐대, 소화, 액자, 도자기, 시계 소품구수스텐드 전화기 디스플레이 전문매장 (062)955-4411	운수동 광신경찰서맞은편 내장국립·콩나물국립·순대국립·모듬국립 마리고기수육·새끼노고·곱창구이·전골·곱창볶음 (062)942-6331	증심사입구, 피티와 식신업건너편 신수·사주·궁합·택일·작명 대표 이 정 자 (062)227-3698	정동 구노동부맞은편 보성녹지테크2층 기할에너지·체험·설비·아워드·특수·경락·잡화 여드름·피부재형·광주 전남지역 체인점 수시모집 (062)232-5337	주월동 무등시장입구 하이마트옆 포장주문배달 대표 유 상 필 (062)653-3451
홍도아구탕	상무도야지	김가네부동산	한백년결혼상담소	터편의휴게소	최고루두암점	월출산흑염소식당	정원장어 마을
목포 신정동 대성동큰사거리 삼성병원앞 이구 요리의 명가! 최선의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61)274-8389	치평동 BYC건너 국민은행옆 한우생고기·치돌배기, 한우전문 예약 가능, 24시간영업 (062)385-3392	오지동 자연과학고등학교앞 부동산모든 것 상담환경 대표 김 석 현 (062)268-3135	북동 천주교 건너편 국제결혼·초혼·재혼전문 상담환경입니다 대표 최 한 주 (062)527-6672	오치동 오치사거리에서 북부소방서사이 저렴한 술과인주 대표 김 정 미 (010)4620-2910	두암동 푸른피크밸리와 위미트사이 1번국도로변 광주의 대표주자·최고를 자랑하는 최고루 최고재료·최고방장·전화주문·신속배달 (062)1577-8552	장동 노동부맞은편 김명원내과·옆골목 영암 월출산 농장작영 흑염소육·흑염소등전문점 대체·예약·남원형 (062)236-1181	임암동 효천천역 78번정류장옆 장어구이전문점 된쪽배기·선불셋트·장판매 대표 최 상 준 (062)675-0990</td